

3. 枚方・히라카타



市立枚方宿鍵屋(かぎや)資料館・시립히라카타숙소카기야

1. 地域概観・지역개관

京阪枚方公園駅から5分ぐらい歩くと、古風な町屋があります。京都と大坂をつなぐ淀川の間地点に位置する枚方は、早くから人と物の行きかう交通のかなめで江戸時代に「京街道」として整備されました。

大坂から枚方は2番目の宿場に指定され、大名や幕府役人の宿泊所である本陣や公用の荷物と荷物を運ぶ人馬役の仕事をするところである問屋場が置かれ、宿場の中心になりました。

「鍵屋」は伏見と大坂を結ぶ三十石船の船待ち宿として江戸時代に栄え、1997年まで料亭を営んでいました。鍵屋主は1811年建築の町屋で枚方市の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ました。

解体・復元工事の後、2001年に「枚方宿鍵屋資料館」として開館しました。

この資料館には「枚方宿」の歴史を伝える様々な資料が展示されており、その中に「来辰年

케이한 히라카타 공원 역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으면, 고풍스러운 마차야가 있다. 교토와 오사카를 잇는 요도강 중간 지점에 위치한 히라카타는, 일찍부터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로 에도 시대에 “교가도”로 정비되었다.

오사카에서 히라카타는 2번째 숙박지로 지정되어, 영주나 막부 관리의 숙소인 혼진과 공물 운반 인부와 말관리 업무를 보는 톨야바(역참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숙소의 중심이 되었다.

“카기야”는 후시미와 오사카를 잇는 여객선(산짓코쿠부네)을 기다리는 숙소로 에도 시대에 번성하여, 1997년까지 요정을 경영했다. 카기야의 주 건물은 1811년 지어진 마차야로 히라카타 시의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해체·복원 공사 후 2001년에 「히라카타슈큐카기야자료관」으로서 개관했다. 이 자료관에는 “히라카타 숙소”의 역사를 전파하는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그 중에 이듬해 조선 통신사 방일에 따른 히라카타 숙소의 28 마을에서 노역 분담을 약속한 각서(래진년조선인

朝鮮人來朝二付枚方宿助郷貳拾八村勤方申合之覚」(1747年)もあります。朝鮮通信使一行が大坂から川御座船で淀川をのぼり、この枚方宿で休憩したのです。

래조 관련 히라카타 슈큐 지원 28개 마을 근로자 합의 각서, 1747)가 있다. 조선통신사 일행은 오사카에서 가와고자부네선으로 요도를 거슬러 올라와 이 히라카타 숙소에서 휴식했다



"江戸時代の枚方宿付近の推定復元した地図 (市立枚方宿鍵屋資料館にて撮影)
에도시대의 히라카타쥬쿠 부근을 추정 복원한 지도(시립 히라카타쥬쿠 카기야자료관에서 촬영)

2. 関連人物・관련인물

龜山藩主 松平信義・가메야마 번주 마쓰다이라 노부요시

江戸時代後期の大名・老中。丹波国龜山藩 7代藩主。丹波龜山藩形原松平家12代。官位は従四位下・侍従。1824(文政7)年 龜山藩分家の旗本・松平庸熙の長男として生まれました。本家の6代藩主・松平信豪の養子となり、1843(天保14)年2月9日の養父の隠居により家督を継ぎました。桜田門外の変、坂下門外の変などで幕末の世情不安な時期にあり、信義は養父・信豪が井伊直弼の姻戚であった関係から安政の大獄に協力した経緯があり、水戸藩浪士らのテロの標的とされました。また、生麦事件とその賠償金問題、薩英戦争などの事後処理でイギリスとの交渉にあっています。

에도시대 후기의 다이묘·단바국 가메야마번 7대 번주다. 단바 가메야마번 마쓰다이라 가문의 12대며, 관위는 종사위하·시종이다.

1824년(분세이 7년), 가메야마 번 분가의 본진 무사 마쓰다이라 요오키의 장남으로서 탄생. 본가의 6대 번주, 마쓰다이라 노부히데의 양자로 되어, 1843년(덴포 14년)2월 9일의 양아버지의 은거로 가독을 이었다. 사쿠라다문 밖의 변, 사카시타문 밖의 변 등으로 막부 말기의 불안한 정세의 시기에, 노부요시는 양부·노부히데가 이이 나오키의 인척이었던 관계로 안세이 대옥에 협력한 바 있다. 미토 번 실각 무사들의 테러의 표적이되기도 했다. 또, 생보리 사건과 그 배상금 문제, 사쓰마번과 영국의 전쟁 사후 처리로 영국과의 교섭에도 임했다.

3. 疲れ取りの宿・ 숙소

1719(享保4)年の枚方に残された史料には、
「九月十日休息, 御馳走 谷出羽守(大名)前当後
三日分. 御賄方 角倉与一(代官)人足三五人馬
四八疋. 西上刻着船(午後6時ころに枚方に到
着), 子上刻出船(午前0時前後に出発)

御帰国十一月四日辰下刻出船上刻(帰国は
11月4日午前5時に着き8時出発)」と記されて
います。

また朝鮮通信使の製述官である申継翰は、
『海游録』でこのように記しています。

「夕方頃に枚方の館の下について、船を泊
めて食事をした。館は関白が置いた茶屋であ
り、守官は谷出羽守衙衝である。温かい食事
を用意していただいた。三使臣は船から下り
ず私も船の中にいた。夜になって、明るい月
が浦に満ち、棹をさして出発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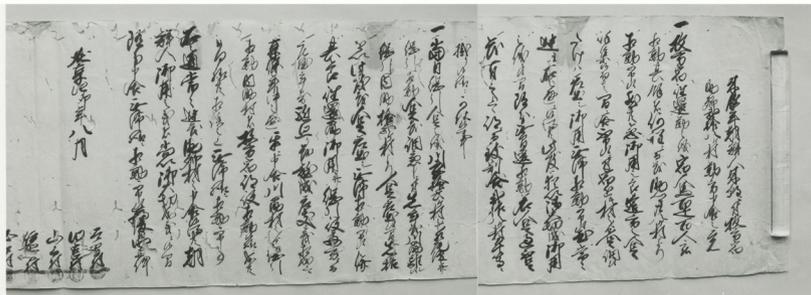
枚方にとまった時間は短時間で船の上で食
事をとるなど休憩したようです。

히라카타에 남아 있는 1719년(교호 4년)의 자료
를 보면, '9월 10일 휴식, 3일간의 접대담당 타니
데 히노가미(영주), 식사담당 스미노쿠라 요이치
(다이칸), 인부 35인, 말 48일. 조선통신사의 배는
오후 6시경에 히라카타에 도착하고, 오전 0시 전후
에 출발, 귀국은 11월 4일, 오전 5시에 도착해서 8
시경 출발'이라고 적혀 있다.

또 조선통신사의 제술관인 신유한(申維翰)은 『해
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황혼녘에 히라카타 숙소 아래에 도착해, 배를
정박하고 식사를 했다. 숙소는 관백이 준비한 찻집
이며, 수관은 타니데 하노가미다.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았다. 삼사 사신은 배에서 내리지 않고 나도
배 안에 있었다. 밤이 되어 밝은 달이 바다를 채우
고 노를 저어 출발했다.’

이 사료에 의하면 히라카타에 멈춘 시간은 짧은
시간으로 배 위에서 식사를 하는 등 휴식을 취한
것 같다.



「来辰年朝鮮人来朝二付枚方宿助郷貳拾八ヶ村勤方申合之覚」(1747)

「래진년조선인래조 관련 히라가타 숙소 지원 28개 마을 노역 합의 각서」(1747)

『竹内家文書』 その1746号、枚方市教育委員会蔵

다케우치가 문서 1746호, 1747년, 히라가타시교육위원회 소장

朝鮮通信使が来るにあたって枚方宿の28の村で助郷の分担を申し合わせた覚書

조선 통신사가 왔을 때 히라카타 숙소주변 28개 마을 노역 분담을 약속한 각서

コラム・칼럼

枚方宿の村の人たちは、朝鮮通信使が来る
ときにどのような仕事をしたのでしょうか？

それは、下の絵にあるように、船を引っ張
る綱引きの仕事でした。

「船を引っ張る」というのは不思議ですね。

大坂から淀川をさかのぼってくるので、川
の流れにさかかります。そのため、船から綱
をのぼして沿道から引っ張ってもらうので
す。絵を見ると、三十石船を3人で引っ張って
います。

朝鮮通信使が乗った船は1隻を80人で引っ張
りました。船は100隻ほどありましたので、枚
方宿での綱引人足は約1500人でした。

히라카타 숙소의 마을 사람들은, 조선 통신사가
왔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

아래 그림에 있듯이, 배를 강 위로 끌어당기는
일을 했다.

‘배를 끌어당긴다’고 하는 말이 좀 이상스럽다.
이 말은 오사카 요도가와에서 교토로 거슬러 올라
오는 강은 수심이 낮아 노를 저을 수 없어서 배에
줄을 달아 강둑에서 잡아당기게 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여객선을 세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다.

조선통신사가 탄 배 1척은 80명이 끌어 당겼다.
배는 100척 정도였으므로, 히라카타 숙소에서 동
원된 인부는 약 1,500명이었다. 히라카타의 사람
만으로는 부족해서, 카와치 국내의 여러 마을에서
동원한 것이었다.



綱引きに駆り出された枚方宿の農民たち(枚方鍵屋資料館)
배를 끄는데 동원된 히라카타 숙소 농민들(히라카타가키야자료관)